

배울 말 씀 욥기 1:1-42:17
읽을 말 씀 욥기 42:1-6
외울 말 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강건한 사람이 된다.

포인트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다스리심을
 알라!
목표 ①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안다.
 ②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됨을 안다.
 ③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한다.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어린이용 교재

설 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성경 시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셨다. “너는 내가 땅을 만들 때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호수와 바다의 물을 마치 문을 닫는 것처럼 막아서 해변에 넘치지 않게 하였느냐? 누가 번개와 천둥의 길을 만들었느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다.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이 겪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은 정금과 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정금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다.

21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자.

핵심 단어

욥의 시기 | 욥이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족장 시대(아브라함-요셉의 시기) 정도로 본다. 왜냐하면 욥은 한 대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많은 종들의 생활까지 책임을 지고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는 아브라함 등과 같은 대가족 족장의 문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욥이 살던 우스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 면에서 볼 때, 욥은 이스라엘의 형성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추론이다.



내가 겪은 힘든 일을 적어본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시험지가 있어요. 1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서술형 문제

1 나에게 찾아왔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세 가지 이상 써보세요.

- ① 친구를 따돌리다가 도리어 내가 왕따를 당하게 됨
- ②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함
- ③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부모님의 이혼, 치료하기 힘든 중대한 질병 등

다 풀었나요? 적은 내용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주세요. (이야기를 듣는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찾아와요. 저도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교사의 경험을 나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1. 의인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문제에 제시된 성경을 찾아 읽고 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선택형 문제

- 2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 말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 1:1) (④)
- ① 정직함 ② 하나님을 경외함 ③ 악에서 떠남 ④ 평판이 나쁨

욥을 설명하는 말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는다.)

정답은 '④ 평판이 나쁨'이에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나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잘 믿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가족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욥은 자녀들이 잔치 중에 혹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잔치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문제에 제시된 성경을 찾아 읽고 3번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세요. (시간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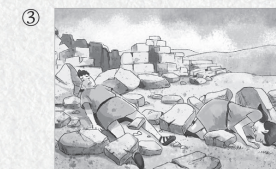
3 욥이 당한 고난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②)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욥기 1:14-15).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고 양과 종들이 휩쓸려 가서 죽었다 (욥기 1:16).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 (욥기 1:18-19).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욥기 2:7).



욥이 당한 고난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는다.)

정답은 '②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고 양과 종들이 휩쓸려 가서 죽었다'예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에게는 양이 칠천 마리, 낙타가 삼천 마리, 소가 오백 겨리(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 암나귀가 오백 마리나 있었고 종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소와 나귀, 낙타를 빼앗기고, 양들은 불에 타 죽었으며, 종들마저 다 죽고 말았어요. 심지어 욥의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고 말았지요.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얼마나 가려웠던지 손으로 긁는 것으로 모자라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며 욥을 괴롭게 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욥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렇게 욥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2.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욥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대답을 듣고) 사실, 욥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욥이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은 좌절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며 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문제에 제시된 성경을 찾아 읽고 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4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22:5)

..... (①)

- ①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 ② 욥의 집안에 사탄의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 ③ 욥에게 우연히 재난이 닥친 것이다.
- ④ 욥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계략으로 인한 것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정답은 '①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예요.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해서라도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라고 했어요.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죄가 없는 자신에게 왜 고난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3.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문제에 제시된 성경을 찾아 읽고 5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5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욥기 38:1-7)

..... (③)

- 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
- ② 담대하게 고난을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 ③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 ④ 사람은 능력과 지식이 충만한 특별한 존재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정답은 '③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예요.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한 분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4. 고난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에 제시된 성경을 찾아 읽고 6번 문제의 답을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 개예요. (시간을 준다.)



- 6 고난을 통해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 23:10, 42:5)
- (① , ④)
- ①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다스리심을 알게 되었다.
 - ②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③ 지금 땅을 팔면 원래 재산을 복구할 만큼 돈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④ 고난을 이기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대답을 듣는다.)

정답은 '①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다스리심을 알게 되었다', '④ 고난을 이기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예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 친구들도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고난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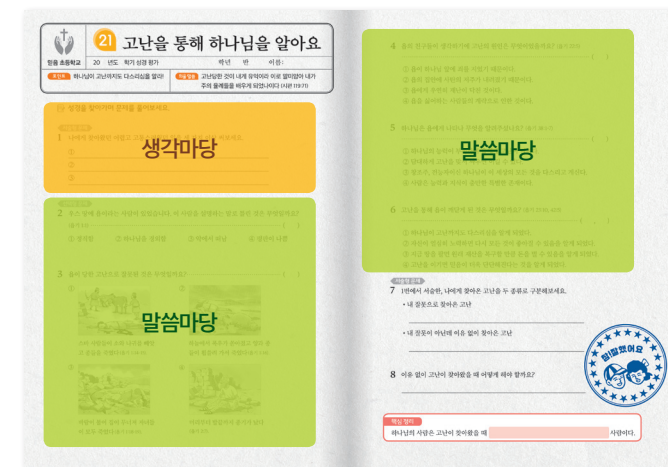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주셨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은 재물과 자식들을 주셨어요.

D

다이내믹 클래스 진행 시, 영상을 보지 못한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각마당부터 시작하는 레귤러 클래스로 진행한다. 모두 영상을 보고 왔을 때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 ① 조 편성 : 어린이들에게 손바닥과 손등 중에 선택하여 내밀게 하여 같은 것을 낸 어린이들끼리 모아 조를 나눈다.
- ② 조별로 토의를 한 후 조별 대표가 발표한다.
토의 내용 :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한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 ③ 배움마당으로 이어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나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많이, 더욱 깊이 알아갈 것을 기대하세요. 저를 따라 다 함께 외쳐보세요.

포인트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다스리심을 알려!”



D

생각마당 활동을 진행한다.

1. 나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 적어본다.

여러분 교재의 7번 문제를 보세요. 1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적은 고난이, 내 잘못으로 온 것인지 내 잘못이 아닌데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 구분해서 적어 보세요. (시간을 준다.)

서술형 문제

7 1번에서 서술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두 종류로 구분해 보세요.

• 내 잘못으로 찾아온 고난

친구를 따돌리다가 도리어 내가 왕따를 당하게 됨,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함 등

• 내 잘못이 아닌데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부모님의 이혼, 치료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 등

내 잘못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대답을 듣는다.)

내 잘못으로 고난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잘못으로 고난이 찾아왔다면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해요.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2.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을 듣는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8번 문제의 답으로 적어 보세요. (시간을 준다.)

8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약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에요.

3. 핵심 정리를 확인해본다.

이제 여러분 교재 맨 아래에 있는 핵심 정리를 보세요.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정답을 빈칸에 적어 보세요. (시간을 준다.)

핵심 정리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사람이다.

적은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대답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을 더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 그 가운데에서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요!

D

-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등)

기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로 다짐하며 기도하고 마친다.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다스리심을
알라!

